

광주시,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입장 번복해 착공 결정

동광주IC~광산IC 11.2km 구간 확장사업 시민 토론회 개최 시, 분담금 4000억 부담...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노력

광주시가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 착공을 위해 현재까지 밀린 광주시 분담금 4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을 정부 추경에도 반영키로 했다.

예산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확장공사 사업에 대한 분담비율(국비 50%, 시비 50%)을 조정하면 뒤 공사착공에 들어가기로 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광주시는 착공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려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매년 1000억원의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공사가 시작되면 교통혼잡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1일 오후 광주시 북구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시민, 안평환·정다운·조석호·최지현·채은지 광주시의회의 의원, 구의원, 전문가, 지역 상공인, 대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논란을 씻기 위해 마련됐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동광주IC부터 광산IC까지 총 11.2km 구간을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8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공사비를 둘러싼 광주시와 정부의 분담비율이다. 지난 2015년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비를 50대 50 비율로 분담하기로 협약해 광주시가 40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시공사가 선정됐고 설계용역이 진행돼 착공까지 앞뒀지만, 광주시는 지금까지 발생한 467억원을 분담하지 않았다.

이를 분담해 공사가 시작되면 분담비율을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부담금 미납부 이유였다.

강 시장은 총 4000억원의 시비를 들이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국책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노동계까지 압박에 나서자 강 시장은 시민들의 입장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에서는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데다 교통 정체 해소, 물류 효율성 향상, 지역 간 연결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반대 측은 광주시 재정부담 과중 우려, 환경 훼손 가능성, 도심 확장에 대한 신중론 접근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단지 하룻만에 중요한 광주시 사업에 대한 시민



강기정 광주시장 1일 오후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열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들의 의견을 모으는 건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 시장은 "국회에서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강 시장은 결국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착공을 시작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공사가 빨리 시작돼 교통정체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이 대다수로 보인다"면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

진하고,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시작되면 최소 5년 이상은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포스코이앤씨, 광주 SRF 중재 중단 요청 '거부'

시의회 중재 중단 촉구 성명

광주시의 어설픈 행정으로 지적받고 있는 광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품연료)시설 운영비 보전에 대한 중재(7월1일자 광주일보 5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광주시의 중재중단 요구에도 2100억원의 운영비를 청구한 정정빛고를 대표사 포스코이앤씨가 중재절차를 유지하기로 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오후 포스코이앤씨측은 광주시에 "중재 절차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광주시의 중재 중단 요청을 거부한 것

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이 중재 시작 초기 78억 원의 운영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6차동안 진행된 중재 절차에서 운영보전 금액을 2100억원대로 올려 광주시의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단심제"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맡길 수 밖에 없게 됐다. 애초 광주시가 정정빛고측의 제안을 수용하고 상사중재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때문이다.

광주시가 '소송'과 '중재'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지 않고 조속한 해결만을 고집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중단을 거부해

대응 방향을 고민 중"이라면서 "7일 열리는 다음 심리에서 21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보전금액의 부담함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한복위)는 성명서에서 "광주시민의 혈세를 불모로 운영손실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라며 정정빛고를 즉각 규탄했다.

한복위는 "운영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경영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정빛고를 즉각 중재 절차 종료에 합의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133명 선정

전남도가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133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도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기술 개발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기업생태계 기반 조성의 마중물과 같은 사업이다.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개 모집 결과, 총 230명이 지원했다. 도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특화기술 분야 133명을 선정했다.

선발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원씩, 2년, 최대 2400만원의 창업기술 사업비가 지원된다. 전남

도는 또 기업 맞춤형 1대1 멘토링과 경영·회계·법률·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이와함께 16개 대학·출연기관 등의 창업·보육공간을 중심으로 기술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인증,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3건 선정

노후상수도정비사업·곡성, 함평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국 최다

전남도 노후상수도정비사업과 곡성, 함평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율계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 자율계정 9건, 시군구 자율계정 11건 등 총 2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전남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3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실적평가를 통해 균형발전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공로자를 포상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남도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전, 단수를 방지해 도민의 물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안정적 물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목사동면 들말센터에 무인카페, 청소년 영어회화, 들말노래동아리, 실버댄스동아리 등 지역공동체를 구성·운영해 지역 대표로컬 문화 복합거점공간으로 정착시킨 점을 인정 받았다.

함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 환경을 개선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주포권역 다목적센터 운영으로 지역특화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월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